

통권
235호

2021. 여름호

어떻게 ▶카깡

흰불떼새를 아시나요?



CONTENS

파괴에서 풀잎으로

Letter from 환경운동연합	03
제주를 닮은, 제주를 담은, 사진으로 읽는 제주	
제주의 여름	06
제주를 말한다	
힘들때새 산란지 보호 운동은 제주 해안을 지키는 일	12
제주공항 백지화 이후 제주가 가야할 길	16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20
당배공초와 미세플라스틱 그리고 바다오염	25
‘천미천이 사라진다’ 두 번째 이야기	28
세계 속 환경 이야기	
주4일 근무제가 기후변화를 늦춘다?	33
Green Question?!	
우리는 매주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있다	35
Eco life 친환경 생활 실천법	
지구를 구하는 물건들	37
당신의 시선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 ‘부패의 맛:초콜렛’	40

발행인 | 김민선 문상빈

편집인 | 이영웅

발행처 | 제주환경운동연합

주소 | 제주시 서광로 192 3층

전화 | 064 759 2162

F A X | 064 759 2159

홈페이지 | <http://jeju.ekfem.or.kr>

E-mail | jeju@kfem.or.kr

Letter from 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신입 활동가 **홍은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쑥스럽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제주도는 오름과 바다, 올레길, 꽃자왈 등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고부터는 자연스럽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꽤나 오래전부터 제가 좋아하는 마을들에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공사가 중단된 폐건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에는 늘 쓰레기가 가득하고, 숲이 조금씩 죽어가며 다양한 생물들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삶도 조금씩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나무가 베어진 비자림로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동백동산을 다녀왔는데, 나뭇가지에 고이 걸려있는 마스크를 보며 인간은 어디까지 이기적일 수 있는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 숲을 찾아가지만 자연 그 자체로 있을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슬로건으로 제주도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민으로서 체감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환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피해로 돌아오고 있고, 이미 파괴된 환경은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위기’가 미디어를 통해 꾸준히 알려지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지금의 환경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한 종이/옥수수 빨대 사용, 헌옷과 폐가구 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들, PET 병 음료나 생수의 라벨을 제거하여 불필요한 공정을 생략하는 등 사회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단체들의 문제 제기와 행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점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로서 꾸준히 제주도민들이 제주지역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환경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최근 환경에 관한 많은 기사와 글들을 읽다 보면 자연은 우리에게 굉장히 관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 보았던 비자림로의 충격적이었던 모습이 지금은 풀들이 많이 자라 이전 모습을 가려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며 되살릴지 문제를 드러내고 함께 고민할 사람들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아 있는 우리의 터전을 지키고, 훼손된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를 담은, 제주를 담은, 사진으로 읽는 제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랜트 윌슨 스미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네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네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네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네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네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



제주의 여름

채진영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마스크 안으로 뜨거운 입김이 느껴집니다.

뜨거운 태양과 습한 공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니 제주에 여름이 왔음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주 곳곳을 탐방하기 좋아하는 저에게는 마스크를 쓰고 움직여야 하는 여름이 그리 좋은 계절은 아닙니다. 그래도 항상 나를 부르는 무언가에 이끌려 집을 나서게 되네요.

제주의 여름 하면 ‘제주 바당’을 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여름 휴가지로서 제주가 각광 받는 이유는 여름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바다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주 지역민들에게 제주 바다는 육지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장소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도 하고 유년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주에 여름이 시작되면 한창인 곳이 있습니다.

해양보호지역이면서 제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입니다. ‘토끼섬’이란 명칭은 지역주민들이 토끼를 방사한 뒤 토끼섬으로 불리웠는데 현재 토끼들은 없고 무더위가 한창일 때 하얗게 피어나는 문주란 꽃들이 섬을 가득 채우며 절경을 이룹니다. 꽃 향기는 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풍기고 해가 지면 함께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얀 문주란 꽃대가 종긋종긋 올라온 모습이 토끼의 귀를 연상케 합니다.



▲ 모래언덕 위 문주란 군락지



▲ 하얀토끼 귀처럼 종긋한 꽃대를 뽐내는 문주란

열대지방 식물인 문주란은 이름 때문에 난초과 식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군자란, 수선화와 같은 수선화과의 식물입니다. 열대지방 식물인 문주란이 어떻게 제주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문주란 씨앗이 해류를 타고 흘러 들어와 뿌리를 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한자리에 있는 것 같은 식물들이 알고 보면 우리들보다 더 많은 세상 보고 있는 것이지요. 식물들이 이동과 번식은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모래언덕인 토끼섬에는 나무들은 전혀 없고 문주란이 절대 우점을 하고 있는 곳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니 문주란과 더불어 살아가는 식물들이 빼꼼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밀한 문주란 틈에서 노란 해바라기 같은 녀석이 인사를 건네옵니다.



▲ 작은 해바라기 같은 갯불금초

바닷가 모래땅에 군락을 형성하며 자라는 갯불금초입니다. 바닷가 주변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대부분 그렇듯 거친 바다와 마주하면서도 당당합니다. 갯불금초는 그 중에서도 작지만 당당하고 거친 듯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식물입니다.

개체수는 많지 않지만 문주란이 우점한 모래언덕에 콩과 식물인 해녀콩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콩과 식물로 다소 대형에 속하는 해녀콩은 제주 바닷가에서만 보이는 특산식물입니다.

예전에는 콩을 삶아서 낙태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주의 해녀분들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였을 때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짠~한 아픔을 주는 식물입니다.



▲ 마음을 아리게 하는 해녀콩과 순비기 나무

바닷가의 허브라 불리우는 순비기나무도 만났습니다. 꽃의 향기보다 잎의 향기가 더욱 진하고 강한 순비기나무는 제주 바닷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화산섬의 돌들이 통기가 좋은 까닭입니다. 해녀콩으로 짠한 마음이 순비기나무를 보니 더 아려웁니다. 해녀들이 잠수했다가 내뿜는 숨비소리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하는 순비기는 두통에 효과가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평생 물질로 두통이 심한 제주의 해녀들은 만병통치약처럼 ‘뇌선’을 달고 사는 데요. 그 이전에는 아마 순비기나무가 소중한 식물로 사랑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척박한 바위틈 갯까치수영

그 다지 여름 바다를 좋아하지 않는 나의 발길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바닷가 식물이 또 있습니다. 바닷가 바위틈에서 하나씩 올라와 뜨거운 태양에 반짝거리는 갯까치수영입니다. 매서운 바닷바람과 염분을 견디며 척박한 바위틈에서도 이렇게 자신만의 매력을 뽐내는 갯까치수영을 멍 때리며 바라보고 있노라니 각자의 자리에서 환경에 맞추어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끈질기게 살아남는 듯 생명들의 힘 앞에 불평불만이 많은 나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토끼섬으로 출발했던 굴동 포구로 돌아와서 포도촌 사이로 보이는 토끼섬을 바라봅니다. 언젠고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제주의 여름을 이야기하면 ‘제주 바당’을 먼저 떠올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제주의 숲과 계곡을 더 좋아합니다. 제주의 여름 시원한 계곡은 어떤 모습일까요? 백록계곡으로 향합니다.

선덕사의 일주문, 편액에는 한라산 선돌 선덕사라 적혀 있습니다.



선돌 지역은 오래전부터 많은 수행승들이 하천 토굴에서 수행을 하다가 서귀포 지역으로 나아가 불사(佛事)를 일으켰다고 전해 내려오는 곳입니다. 계곡을 따라 탐방하

다보면 백록 계곡 곳곳에 귀들이 많은 것을 보니 수행승이 많았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주의 물이 굽이치며 만들어낸 하천 바닥의 다양한 군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며 계곡탐방이 시작됩니다. 바다에서 보이는 가오리가 보이고, 산에 있어야 할 늘어진 듯 잠자는 염소도 보이고,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세계가 펼쳐지는 계곡의 세계는 여름만 되면 나를 기어코 계곡으로 끌어 당깁니다.



▲ 계곡에 나타난 가오리



▲ 늘어진 듯 잠자는 염소



▲ 입벌린 바위



▲ 예쁜 포트홀

미끄럽고 거친 물길을 따라 돌아가기도 하고, 바위를 타고 넘어가기도 하다 보니, 어느새 내 앞에 어떤 단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영롱한 초록 물빛의 신비로운 세계가 나타납니다.

이곳이 백록계곡입니다. 잠시 일행들과 바위에 걸터 앉아 암반수도 마셔보고 간단히 준비한 간식도 먹으며 잠시 계곡에 눌러 온 신선이 된 기분으로 휴식을 취해봅니다. 시조 한 수 읊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장소랄까요?



▲ 천연암반수 백록계곡의 사파이어 물빛

갈 길이 멀어 푸른 계곡물을 뒤로 하고 다시 계곡 탐방길에 나섰습니다. 하천가에 길게 그늘을 드리운 구슬잣밤나무 가지 모습이 심상치 않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가지에 붙어 자라고 있는 녀죽고사리를 날개 삼아 용(龍)이 유명하듯 하늘로 솟솟음치고 있는 모습도 바위에 이끼와 백태가 번갈아 뒤덮인 모습도 오직 하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풍경입니다. 계곡 어디라도 카메라를 대면 그대로 한 장의 멋진 풍경화가 만들어지는 신비한 공간, 제주의 계곡입니다.



▲ 빛과 그림자 그리고 바위와 나무가 만들어내는 자연의 하모니



▲ 이끼와 백태가 뒤덮인 제주의 하천 암반

계곡 탐방이 마무리될 무렵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나풀나풀 고운 자태를 뽐내는 나도수정초를 만났습니다. 수정난풀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 얼굴(꽃)을 보니 푸른 얼굴이 보여주었습니다. 모양이 흡사한 나도수정초와 수정난풀은 스스로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섭취하는 식물이 아니라 다른 생물을 분해하여 얻은 유기물을 양분으로 해서 살아가는 부생식물입니다.



살아있는 서어나무에 생채기가 나 있어 보았더니 그 썩어가는 부위 위로 잔나비겉상과 난버섯이 착생하고 있습니다. 잔나비겉상은 50cm가 넘는 것도 있을 정도로 큰 버섯에 속하는 지라 숲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약용으로도 활용하는 버섯이라고 합니다. 시선을 조금씩 옮겨보니 누가 지었는지 이름과 찰떡인 너구리 꼬리 이끼도 보입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발길이 멈추다 보니 출발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데 7시간이 걸렸습니다. 제주의 어디라도 좋지만 어느 계절이든 매력적인 곳 중에 하나가 제주의 계곡이 아닐까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숲과 바다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절, 제주의 여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지나 다시 가을이 오면 또 다른 제주를 만나게 되겠지요. 모진 바닷바람을 견디며 사는 제주 바닷가의 식물들과 뿌리 박을 토양이 없어 제 힘을 다해 바위를 끌어안아 버티고 있는 계곡의 나무들을 보니 자연 앞에 겸손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이렇처럼 온 힘을 다해 살고 있을까요? 온 마음을 다해 무엇인가를 위해 애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지요.

회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살아 가고 계신가요?

제주를 말한다

흰물떼새 산란지 보호 운동은 제주 해안을 지키는 일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해안사구의 흰물떼새 동지를 보호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을 Daum 같이 가치에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한 6백만 원이 조기 완료되었고, 100원 모금부터 시작해서 모금 캠페인에 13,051 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준 소중한 모금액으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흰물떼새 보전운동을 진행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200만 년 전, 화산이 만든 제주 바다 그리고 해안사구

한반도의 가장 남쪽 섬, 제주도.

제주에는 장장 200만년의 세월 동안 화산이 여러 번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다. 제주의 바다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상상 못하는 뜨거운 온도의 용암이 차디찬 바닷물과 만나자 급격하게 식는다. 이 과정에서 검고 기괴묘묘한 용암바위 해안이 만들어진다. 이후, 억겁의 시간을 지나면서 용암바위가 잘게 부서지고 부서지다가 종국에는 모래해안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제주의 모래해변은 화산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에는 우리나라 그 어느 곳보다 바람이 거센 곳이다. 그 거센 바람이 모래해변을 만나면 모래를 육지 쪽으로 날리게 된다. 길게는 바람이 모래를 육지 쪽으로 5km 넘게 쌓이게 하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제주의 해안사구이다. 해안사구는 바다와 육지 생태계의 중간지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곳을 '점이지대'라고 한다. 한 개의 지리적 특색을 나타내는 지역과 또 다른 지리적 특색을 나타내는 지역의 중간 성격의 지대를 말한다. 그래서 육지에도, 바다에도 존재하지 않는 희귀한 동식물이 많이 생육하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높다.

제주의 해안사구를 보금자리로 삼은 흰물떼새



▲ 지난 4월 사계 해안사구에서 찍은, 갓부화한 흰물떼새 새끼. 염생식물인 통보리사초와 갯메꽃에 숨어있는 모습이다.

그 동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흰물떼새이다. 새들 중에 해안가에 등지를 트는 새는 별로 없다. 거센 바람과 파도, 염분이 새끼를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척박한 모래땅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새가 흰물떼새이다. 흰물떼새는 봄이 시작되는 3월부터 6월까지 제주의 해안사구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다. 그런데 흰물떼새는 특이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구 부분에 알을 낳는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 사이에 알을 낳기도 한다. 쓰레기인지 알인지 분간 못하게 하기 위한 흰물떼새의 눈물겨운 ‘생존의 기술’이기도 하다.



▲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작년말부터 흰물떼새 산란지 보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신양 해안사구)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제주도의 해변에 개발 사업이 집중되면서 이들이 살아갈 자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해안사구는 현재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주의 해안사구는 80% 이상 사라졌다고 보고되고 있을 정도이다.(2017년 국립생태원 보고서)

해안사구 개발만이 문제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제주의 모래해변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의 특성상 알은 발에 밟히기 일쑤이고 차량의 바퀴에 알이 부서지기도 한다. 그래서 번식기인 3~6월에 흰물떼새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방문객들에게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흰물떼새의 산란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안사구에 설치하는 간단한 일만으로도 흰물떼새를 보호할 수 있다고 조류전문가들은 말한다.

13,051명의 후원으로 5개월간 흰물떼새 보전 운동 진행하다



그래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해안사구의 흰물떼새 둥지를 보호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을 Daum 같이가치에서 진행했다. 그 결과 목표로 한 6백만 원이 조기 완료되었다. 100원 모금부터 시작해서 모금 캠페인에 13,051명이 참여해주셨다.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준 소중한 모금액으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흰물떼새 보전운동을 진행하였다.

▲ Daum 같이가치에서 흰물떼새 보전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결과 목표액인 6백만원이 조기 모금되었다.

먼저, 흰물떼새 산란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도내 해안사구 18개 지점에 흰물떼새 산란지 안내판 설치를 마쳤다. 올레길과 겹치는 해안사구는 (사)제주올레와 함께 논의해서 공동명의로 설치했고 사계사구, 하도사구 등 흰물떼새가 산란을 많이 하는 곳은 3-6월 산란시기에는 올레길을 우회하기로 했다. 4월 2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환경도시위원회·농수축위원회와 공동으로 흰물떼새가 산란을 하는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도적으로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 도의회뿐 아니라 제주도당국도 협조하기로 하였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와 함께 제주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조례를 제·개정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으로 구성된 흰물떼새 모니터링팀은 조류 전문가와 함께 3월부터 6월까지 흰물떼새 산란지를 모니터링하여 흰물떼새 서식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신양해안사구, 사계해안사구, 하도 해안사구, 표선 해안사구에서 둥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계 해안사구에서 암수 5쌍, 새끼 5마리, 둥지 1곳을 발견한 것 이외에는 흰물떼새 숫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안개발과 함께 최근 몇 년간 관광객들이 해안에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생기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흰물떼새는 제주 해안의 지표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흰물떼새 보금자리를 보전하는 운동은 한 종의 보전을 넘어 해안사구를 보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제주 해안을 보전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흰물떼새 보전 활동을 보고 신문과 방송에서도 많이 다뤄주었다. 지방지뿐 아니라 중앙지에서도 이 내용을 여러차례 다뤄주었고 YTN, KBS 등 도내외 방송에서도 흰물떼새에 대한 내용을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촬영하였다. 그리고 흰물떼새를 캐릭터로 한 예쁜 홍보물도 만들었다. 흰물떼새 배지와 핸드폰 그림잇이다. 이 홍보물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흰물떼새 산란지 보호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 흰물떼새 보전활동은 올해로 그치는게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행정, 언론에서도 함께 해야 흰물떼새가 해안사구를 안전한 보금자리로 여기게 될 것이다.

제2공항 백지화 이후 제주가 가야 할 길¹⁾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최종 반려 결정되면서 성산지역에 추진되어 온 제2공항 건설계획은 사실상 좌초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국토부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성산지역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한 지 5년 8개월 만입니다.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공론조사 및 환경부 결정 수용해 제2공항 백지화 선언해야



지난 6월 20일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으로 행정절차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환경부가 '부동의'가 아닌 '반려'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아직 계획추진의 기회가 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보면 내용적으로는 부동의 결정과 다름이 없다.

¹⁾ 이 글은 지난 2021년 7월 24일 인터넷 언론 <제주의소리>의 [이영웅의 지금 제주]에 실었던 글을 일부 첨삭하여 정리한 원고입니다.

환경부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정리하면 조류 및 철새도래지 분포에 따른 비행안전 문제와 조류 서식지 보호 문제, 항공기 소음 문제,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 문제, 습곡의 보전방안 문제 등이 언급되었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보완서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공항건설 계획이 시행될 경우 지적된 문제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공항건설 입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인 셈이다.

이번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으로 행정절차 상 제2공항 건설계획이 철회되는 수순을 밟게 되기는 했지만 사실 제2공항 건설사업의 백지화는 이미 지난 2월 18일 제주 제2공항 찬·반 도민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정되었다. 이는 단순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정 협의를 거쳐 제주도의회, 제주도, 국토부가 합의하여 공론조사의 성격으로 진행된 공식적인 도민의견 수렴 절차였다. 사업주체인 국토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지난 2월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공론조사 결과 제2공항 건설 반대가 높게 나오면서 제2공항 사업은 이미 이 당시 추진동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국토부는 약속대로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 건설계획 백지화를 선언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외면한 채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려는 심산이라기보다는 제2공항 사업계획이 무산되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커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러한 행보는 제2공항 건설계획의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잃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도민여론 조사에서도 제2공항 건설계획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행정 절차적으로도 공항건설에 따른 환경적 입지 검토에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토부는 여전히 침묵 중이다. 지난 5년여간 제2공항 계획으로 도민사회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갈등은 물론 찬·반으로 갈라진 도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과 이를 풀어야 할 의무는 당연히 국토부에게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민여론조사 결과 때처럼 환경부의 반려 결정 후에도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무책임함을 넘어 국민에 대한 불신행정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야 할 제2공항 갈등은 여전히 도민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더욱이 국토부의 무책임한 행보는 제2공항 찬성론자들에게 희망고문을 가하며 오히려 제2공항 갈등 해소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제라도 도민의 판단과 환경부 결정에 따라 제2공항 사업계획 백지화를 선언하여 그동안 누적된 도민사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어 제2공항 대안으로 도민들이 요구해 온 현 제주공항 개선 및 활용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해 가야 한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제2공항 추진을 고집하며 일방적으로 제2공항 찬성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는 도민과 환경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지역사회의 갈등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당정 협의를 통해 도민의견 수렴 절차의 단초를 마련한 만큼 추가 당정 협의 개최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민이 선택한 보전과 지속가능성의 방향으로 가야

6년 가까이 벌어진 제2공항 갈등과 백지화 과정은 우리사회가 민주주의를 다시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주민동의와 협의도 없이 한 마을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평생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와 제주도가 주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권위주의적인 행정뿐이었다. 제주섬의 환경적 수용력을 감안한 계획수립과 제2공항 사업의 타당성을 지적하는 도민들에게 이는 전문가의 판단 영역이라며 이를 의심하거나 도전하지 말라는 행정의 자세는 가히 폭력적이었다.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직후 관권을 동원한 제2공항 건설 찬성 여론몰이 역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정행위였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는 하지만 제2공항 갈등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개발독재의 잔재가 여전함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이에 맞서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조직적인 대응으로 제2공항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계획의 타당성 문제를 줄기차게 지적했다. 또한 제2공항의 대안으로 현 제주공항의 개선을 통한 활용 가능성을 제기했고, 제주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제2공항 건설계획의 추진 여부는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른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은 최근에 와서는 지방자치 영역은 물론 주민들이 국책사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주민들의 자기결정권 요구에 당·정이 이를 수용했고,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그리고 그 결과 제주도민들은 개발과 성장보다는 보전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선택하였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 제주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지를 도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특히 그동안 국책사업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 같은 것이라는 인식을 깨는 결과이기도 했다.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환경의 가치를 훼손하며, 도민사회의 여론에 반하여 강행해 온 국책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엄중한 심판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2공항 건설계획 백지화는 제주사회의 변화와 미래 비전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고민하게 하는 과제를 던진 사건이다. 이에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할 곳은 제주도이다. 제주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도민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제주도는 이에 부합하는 정책 변화와 함께 새로운 제주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하고,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로 가는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제주 미래를 위한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부응하는 길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8년간 약 900만명에 가까운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만 명 이상이 제품 사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상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올해로 벌써 10년이 흘렀다. 그간 전국민을 상대로 이뤄진 가해기업들의 반생명적 만행이 낱알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요구와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여 활동하는 등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했다. 하지

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구제 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드러나지 않은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다. 이런 상황임에도 가해기업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가슴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8년간 약 900만명에 가까운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여 유독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극심한 건강피해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2만 명이상이 제품사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화학물질 관련 사고와 환경보건사건들을 통틀어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참사가 일어나고 10년이 흘렀지만 직접 책임이 있는 가해기업과 국민의 안전과 보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엄청난 피해의 원흉인 가해기업들은 2021년 6월 4일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 4,117명(사망자는 1,009명) 중 17% 700여건에 대해서만 기업배상을 진행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과연 가해기업들이 피해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의 엄격한 구제기준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배상이 이뤄져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가슴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기만 바라며 배상문제에 숨죽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특별법으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 12월 특조위법을 개정하면서 가슴기살균제 진상규명은 돌연 사라져 버렸다. 아직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법이 개정되도록 나선 것은 다름 아닌 가슴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이 있는 환경부였다.

국가책임을 명확히 밝히는데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돌연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진실을 묻어버리는데 앞장선 것이다. 더욱이 아직 수많은 피해자가 신고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고, 재판과정에서도 유독화학물질에 대한 판단이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중심을 잡아 줘야 할 정부가 받을 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슴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정부가 손을 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이미 수많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사실이 거듭해서 확인되었음에도 1심 재판부는 제조판매사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곧 살아있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나비효과가 바로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셈이다.

이렇듯 가슴기살균제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더해 수많은 피해자가 아직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가슴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소상히 알리지 않고 이에 대한 홍보를 게을리 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의 상황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된 <가슴기 살균제 노출실태와 피해규모 추산> 학술논문을 근거로 발표된 <제주지역 가슴기살균제 제주도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슴기살균제를 구매하여 사용한 도민은 114,370명이고 이에 따른 건강피해자는 12,182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중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0,0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신고한 도민은 2021년

3월말 기준 47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잠재적 건강피해자 12,182명의 0.4%에 불과한 수치로 200명 중 1명 정도만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정부는 물론 이거니와 제주도 역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미진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연구결과다.



그리고 정작 신고를 했으나 피해에 대한 인정도 상당히 인색한 상황이다. 제주시의 경우 31명이 피해를 신고했으나 이 중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16건에 불과하다. 서귀포시는 신고자 16명 중 10명이 인정받았다. 이에 따른 미인정률은 45%(21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3명에 이른다. 피해신고가 극소수인 만큼 피해신고자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분명히 인지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와 가해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해기업이 다시금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뿐이다.

먼저 정부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조사권을 복원해야 한다. 조사권이 없는 이상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 진상규명이 안되면 제2, 제3의 화학물질로 인한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한 조사권 회복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정부와 제주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현재 낮은 신고율은 정부와 제주도가 피해자 찾기에 얼마나 소극적인지를 보여준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단 한차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피해자 신고를 독려했을 뿐 이외에 어떤 홍보도 안 내도 하지 않았다. 홍보와 안내의 부재는 곧 피해자의 신고를 막는 거대한 벽이 되었다. 적극적인 홍보야말로 이번 문제를 푸는 첫 단추라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

끝으로 가해기업의 진솔한 사과와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 분위기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더군다나 피해보상은 법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을 회피하는 것은 곧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이다.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진솔한 사과와 함께 온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가의 품격을 나타내고 국민의 자부심을 확인하는 지표로서 사회적 참사에 대한 대응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이 국가를 믿고, 또한 기업을 믿기 위해서는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백과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명확한 책임과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불리는 시대에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품격은 지난 잘못들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잘못된 구조를 바로세우는 것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 시작점 중에 하나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정의로운 매듭이라는 점을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사법부, 가해기업들이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 및 문의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https://www.healthrelief.or.kr>)

담배꽂초와 미세플라스틱 그리고 바다오염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여름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해양쓰레기는 이제 바다와 바다 생명의 위협을 넘어 인간에게 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실천행동으로 “제주줍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상반기 “제주줍깅” 캠페인을 진행했다. “제주줍깅”은 제주 해안의 쓰레기를 정화하는 한 편, 버려진 쓰레기의 성상을 조사해서 어떤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고 있고 그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는 활동이었다. 총 3회에 걸쳐 수거된 332kg, 3,864개의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나온 쓰레기는 담배꽂초였다. 무려 1,324개가 발견되었는데 전체 수거된 쓰레기의 34%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양이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원래 형태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플라스틱 파편이 745개, 어업활동에서 발생한 각종 끈류가 415개가 발견되었다.

해변에서 담배꽁초가 많이 발견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미 여러 조사에서 해변에서 담배꽁초가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조사는 지난해 7월과 8월에 전국 5개 권역별 14개 지역에서 진행된 환경운동연합의 “해양플로킹”이라는 시민참여 해양쓰레기 조사였다. 조사 결과 수거된 총 3,879개의 쓰레기 중에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이 635개가 나온 담배꽁초였다. 다음으로 391개가 나온 비닐봉지와 포장지, 300개가 나온 어구 순이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담배꽁초는 90% 이상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되어 있고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바다로 유입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쉽게 변하여 해양생태계와 우리의 건강에 극심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뜰이나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오염이 극심한 요즘 해변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것일까. 육지부 사례와 비교해도 너무 많은 양의 담배꽁초가 수거되는 상황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이번 상반기 조사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변활동 과정에서 이뤄지는 흡연행위가 상당부분 무단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화활동 과정에서도 쓰레기를 줍고 있는 사람들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담배꽁초를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가는 모습을 솔하게 목격했다. 그만큼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불법이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행위라는 인식 자체가 상당히 부족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개인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문제도 있다. 정부가 해변에서의 흡연행위와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수욕장 흡연행위 금지규정을 아예 폐지한 바 있다. 대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수욕장 금연 대책을 지자체 각자 재량에 따라 조례를 만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역시 조례를 통해 흡연행위를 금

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1년 내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만 가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간접흡연 등 건강문제만 강조되고 환경보호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변에서의 흡연행위를 규제하고 해수욕장 등 해변활동이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제주도는 해변관광지가 많은 특성상 해변에서의 흡연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로의 조례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더 늦기 전에 발 빠른 대처에 정부와 제주도정이 나서주길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

천미천이 사라진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천미천은 도내 143개 하천 중에서 가장 긴 하천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많이 훼손된 하천이기도 합니다. 이미 중류, 하류는 훼손되었고 최근에는 상류도 정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무리 침수피해 지역이라고 해도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20차례 이상이나 정비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과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초에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천미천 성과감사를 청구하였으며, 이 내용을 포함하여 천미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천미천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하천정비 공사 중

천미천은 큰 줄기인 본류 이외에도 작은 줄기인 지류가 상당히 많은 하천이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마치 사람의 손금 모양이나 나뭇가지 모양을 닮았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모양의 천미천은 큰 물줄기를 이루는 본류로 이어지기까지 60여 개의 지류와 합류한다. 그래서 김정호는 1861년 '대동여지도'에서 제주도를 그렸을 때도 하천 중, 천미천을 줄기가 가장 길고 복잡한 하천으로 묘사했던 것이다.



▲ 천미천의 중류에 해당하는 천미천 구좌지구 공사. 높은 제방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작은 지류들이 합쳐지면서 매우 큰 넓이의 하천을 이루게 되었다. 천미천을 하류부터 상류로 나눈다면 하류는 바닷가에서 성읍2리 마을 입구까지이고 중류는 성읍2리~교래 사거리의 돛배오름 일대이고 상류는 돛배오름에서 해발 1,100m 일대 발원지까지이다.

그런데 이미 하류는 1990년대 초부터 정비사업이 이뤄졌고 또다시 최근에도 제방 공사를 중심으로 한 하천정비사업(천미천 표선지구)이 추진되고 있다. 중류도 마찬가지이다. 중류는 제주시 권역으로서 천미천 구좌지구라는 이름으로 송당리 비치미오름 일대에서 교래리 사무소 일대까지 현재 정비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하류와 중류 일대 모두가 공사 중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21~교래리 제4교래교’ 2.8km의 천미천 정비계획이 포함된 제주시 지방하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통과되었다. 이 구간



▲ 천미천 구좌지구의 우안5지구. 천미천 내에서도 가장 큰 소를 갖고 있다. 오른쪽으로 제방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런데 하천 오른쪽 바로 옆에 타운 하우스 13개 동이 건설되고 있다.

은 돌배오름을 포함한 구간으로서 돌배오름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정비계획에 포함된 것이다. 즉, 이 구간은 천미천의 상류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현재 천미천의 상류부터 중류, 하류 가릴 것 없이 모두 하천 정비구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물론, 동부지역의 거의 유일한 하천이라고 할 수 있는 천미천은 우기 때 빗물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이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성읍민속마을, 신천리, 신평리, 하천리 등의 하류 지역 마을들은 큰비가 올 때 침수피해를 겪었던 곳들이다. 그래서 일찍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을 했었다. 이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주민들의 인명보호와 재산피해를 막는 일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책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요를 넘어선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최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행정당국에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 구간, 예산 등 사업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런데 행정당국은 그러한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해왔다. 그동안 수많은 예산을 들인 사업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면 행정당국은 그동안 하천정비사업을 종합적인 계획이 아닌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단 것인가?(결국 이의 신청을 하고 항의하자 한달 후에야 자료를 보내왔다)

계다가 수많은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천미천 정비 명분은 미흡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근거자료도 명확하지 않다. 천미천은 예전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이미 하상(하천의 바닥) 평탄화, 제방 건설 등 하천정비 작업으로 인해 원형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기존 하천정비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와야 하며 이 평가를 토대로 하천정비 계획이 시행되는 것이 순리이다.

침수 피해 방지 목표와 맞지않는 천미천 정비계획

제주시 당국에서 추진하는 천미천 구좌지구의 경우 천미천의 중류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사업계획 구간을 모두 조사해 본 결과, 하천 주변이 숲이거나 목장지대가 많았다. 하천정비의 이유가 침수피해 예방이라면, 피해가 있는 지역이 가옥이 있거나 농지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 천미천 구좌지구의 우안 5지구 바로 옆에 13개 동의 타운 하우스가 건설되고 있다. 침수피해 지역이어서 제방을 건설하는 천미천 정비계획이 통과된 것인데 바로 옆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농지가 있다 하더라도 필지가 많지 않았다. 이 정도의 농지라면 침수피해가 나는 농지를 매입하는 정도로 해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양안의 상록활엽수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제방을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게다가 천미천 구좌지구 우안 5지구의 경우 하천 옆으로 대규모의 타운 하우스가 건설되고 있다.

천미천 구좌지구 계획 중 ‘우안 5지구’는 천미천 내에서도 가장 큰 소(沼)를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물이 많은 곳이고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은 성읍 저수지에서 상류로서 천미천의 중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경관이 아름다워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현장을 조사해보니 하천정비 대상으로서 선정할 필요성이 매우 낮아 보였다. 특히 하천정비구역이라고 하면 침수구역이라는 뜻인데, 정비구역 1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타운 하우스 허가가 나서 13개 동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습 침수 지역이어서 제방을 건설하는 하천 정비 계획을 세운 것인데 그 바로 옆으로 개발사업 허가를 내준 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이는 천미천 정비사업의 타당성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다. 제주시 당국은 이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하천 관리 정책의 전환을 시작했다

지난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벌이면서 강을 인공적인 수로로 변형시켜 버렸다. 그 결과 여름철마다 녹조라떼가 만들어지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정부는 2020년 6월, 우리 강 자연성 회복구상을 발표했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강’이라는 비전 아래 ‘더불어 사는 강’, ‘맑은 물이 흐르는 강’, ‘살아 움직이는 강’, ‘생명이 숨쉬는 강’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즉, 그동안의 하천을 인위적으로 변형시켰던 하천 정비 역사를 벗어나 하천 복원을 중심으로 한 하천 관리 정책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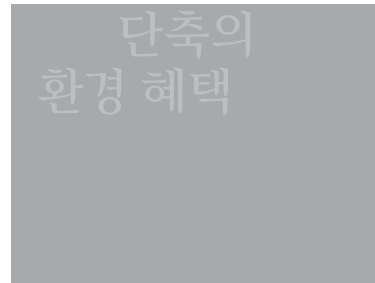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주도가 포함된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자연성 회복 구상(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제주도의 하천정비문제를 반성하고 새로운 하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침수피해가 확실하게 규명된 곳에 한해서 하천정비를 진행하고 정비를 할 경우에는 하천의 생태학적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하천 인근의 상습 침수지역은 토지를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하천 관리 정책이 이처럼 크게 바뀌고 있지만 제주도당국은 제자리걸음이다. 정부의 하천 정비사업은 규모만 다를 뿐 또 하나의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다. 기존의 하천 정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은 그 시급성이 될 수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천미천 구좌지구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천미천 표선지구는 공사계획을 백지화하고 홍수피해 방지와 하천 원형 훼손 방지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구촌 환경뉴스

주4일 근무제가 기후변화를 늦춘다?!

최슬기 (사)제주환경교육센터 교육팀장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코로나19 봉쇄로 생긴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영국 환경단체 '플랫폼 런던'은 30일 발표한 '시간을 멈춰라 - 노동시간 단축의 환경 혜택' 보고서에서 영국이 주4일 근무제로 전환하면 2025년까지

지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1억 2700만톤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영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1.3%에 해당하고, 스위스의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양이다. 또한 개인 승용차 2700만대가 도로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정도의 효과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주 4일 근무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출퇴근 교통이다. 런던의 경우 자전거길 이 잘 발달 돼 있음에도 직장인의 3분의 1이 승용차로 출퇴근에 이용하고 있다. 영국 레딩대 연구를 보면 주4일 근무제로 전환하면 출퇴근 자동차의 운행거리가 매주 9억km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전력 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 혼합 형태는 전력 소비를 증가시킨다. 일부 직원들이 출근하는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전등을 켜야 하고 재택근무자는 집에서 평소보다 많은 전기를 써야 한다. 반면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사무실은 하루를 추가로 완전히 닫을 수 있다. 지난해 영국의 한 민간기업은 주중과 주말의 전기 소비 양태를 분석해 주말 휴일이 3일로 늘어나면 에너지 소비 절감으로 매주 11만 7천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1300만대의 자동차를 거리에서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긴 노동시간은 더 많은 소비와 연관되고,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진다. 레딩대 연구에서 사람들은 추가 휴일이 주어지면 가족과 함께 지내거나 공원에 가고 봉사활동을 하며 심부름을 갈 때 차를 타는 대신 걸어가는 등 탄소를 덜 배출하는 활동에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4일 근무제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다. 스페인은 전국적으로 시범에 들어갔으며, 스코틀랜드도 시범 도입을 지원한 수십개 회사들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영국 소비재 기업 유니레버는 일부 매장에서 주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우리는 매주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있다”

홍은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Q. 우리가 매일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A. 네, 맞습니다. 세계자연기금(WWF)이 발표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은 신용카드 한 장 무게인 5g에 달한다고 합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21g으로 신용카드 네 개를 먹는 셈이죠.

Q. 매주 신용카드 한 장이라면 적지 않은 양인데 우리는 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몸에 플라스틱이 들어오는 건가요?

A. 우리가 쓰는 페트병, 비닐, 스티로폼이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미세플라스틱이 물에 녹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줄 알지만, 이것들은 분해되지 않고 잘게 쪼개져 독성 물질과 결합하여 바다와 강으로 흘러갑니다.

바다를 떠돌다가 바다 속 작은 물고기들이 먹이로 착각하여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이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먹고 결국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됩니다. 결국엔 우리들이 버린 플라스틱을 우리 몸속에 버리는 것과 같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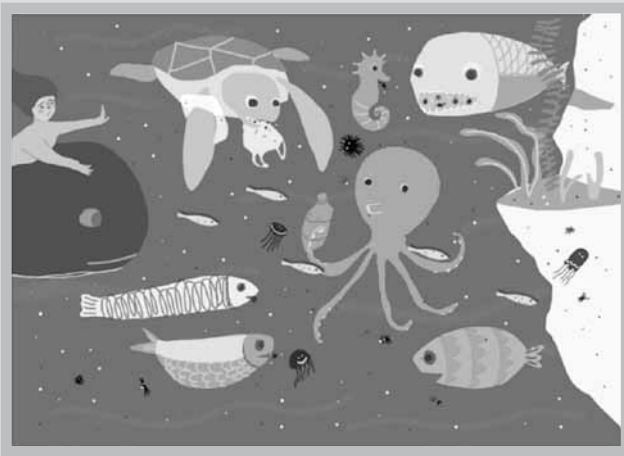
미세플라스틱은 치약, 세안용 스크럽, 바디워시 등 생활용품과 화장품에도 두루 사용되고 있으나 워낙 크기가 작아 눈에 쉽게 띄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잠재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기에 가볍게 여길 수만은 없지요.



Green Question?!

Q.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음료는 텀블러에, 물티슈는 손수건이나 행주로 대체하고 장을 보러 갈 때는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구요. 또한 플라스틱 함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보다는 유기농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구매하고, 되도록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것이 어렵겠지만 조금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언급되어 왔기 때문에 모두가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플라스틱에서 다른 일회용품 사용으로 대체하거나 업사이클링, 줌깅 등 가치 소비를 위해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캠페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플라스틱의 절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환경문제'란 개인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바뀌는 것이 미미해 보일지라도 모든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의 적극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구를 구하는 물건들

강윤희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지구 온 훅시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버릴 때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대부분 물건들은 '자원채취-제조-사용-폐기'의 단계를 거칩니다. 제품의 일회성 수명이 다하면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장 등에서 폐기 처분이 되기 때문에 천연자원 고갈과 기하급수적인 폐기물을 증가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순환 경제'입니다.

순환 경제는 자원채취로부터 제품 사용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경제구조로, '자원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공정 개발, 원료의 재활용 및 재사용,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 제품 생산, 에너지 투입 최소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구는 우리의 삶을 더 쉽고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자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너무 많은 물건을 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몫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친환경 트렌드를 만들어나가고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쓰레기를 줄이면서도 똑같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녹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폐기물 발생을 생산 단계부터 억제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물건 중 친환경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1. 먹을 수 있는 숟가락



매년 미국에서 400억개, 인도에서 1,200억개의 일회용 숟가락이 사용됩니다. 인도국제농작물연구소 연구원 피사파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먹을 수 있는 숟가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제품은 수수, 쌀, 밀로 만들어졌지만 튼튼해서 물과 음식에 닿아도 20분간은 부서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 후 먹지 않고 버려도 5일이면 썩어서 분해가 됩니다.

2. 고체 치약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튜브 치약은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약 10억개의 치약 용기가 매립지에 버려집니다. TV 프로듀서 린지 맥코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체 치약을 개발했습니다. 이 작은 알약을 그냥 씹기만 하면 일반 치약처럼 거품이 나기 시작합니다. 알약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튜브가 아닌 유리병에 담겨 있으며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로 제공되며 리필은 퇴비화가 가능한 파우치에 제공됩니다.

3. 밀랍 랍/밀랍 백



먹다 남은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비닐봉지나 비닐랩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평균 460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포장재의 대체품인 밀랍 랍 또는 밀랍 백은 꿀벌들이 벌집을 짓는 기초재료인 천연밀랍을 면 원단에 입혀 접착 효과와 발수기능을 가진 포장재입니다. 다회용 제품으로 사용 빈도에 따라 3~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4. 국가 공인 녹색제품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녹색제품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녹색제품인 환경표지인증제품, 우수 재활용제품, 저탄소제품에만 환경마크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 종류는 사무용품, 세재류, 친환경 페인트, 음료, 가전제품, 호텔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요즘 환경보호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회용 제품 대신 에코백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관심에 따라 에코백과 텀블러의 생산량은 매우 늘어났지만, 실제 사용 빈도는 그리 높지 않고 너무 흔하다 보니 소중하게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텀블러 하나를 만들고 폐기할때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플라스틱 컵 1개에 비해 13배나 많습니다. 천으로 만들어진 에코백은 131회 이상을 사용해야 일회용 비닐봉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환경보호 효과를 나타내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래 사용할 것인가는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시선

우리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몰라야 한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부패의 맛’

송다솜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초콜릿. 카카오 콩을 정제한 카카오매스에 설탕 등을 첨가해 만든 달콤한 과자의 이름을 우리는 초콜릿이라 부른다. 거무스름하고 씹싸름한 중독성 물질. 초콜릿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초콜릿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은 초콜릿을 만드는 원료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인식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긴 타원 모양에 다 익으면 노란빛을 띠는 ‘카카오’ 또는 ‘코코아’라 불리는 식물의 열매가 그 시작이다. 열매 속에 들어 있는 40~60개의 종자를 발효해 말리면 익숙한 색과 향의 ‘카카오빈’이 생산된다. 카카오 열매가 자라는 환경은 한적적인데, 2/3 이상이 덥고 습한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주로 생산된다. 초콜릿의 주재료인 카카오빈을 생산하고 수확하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달콤한 맛 이면에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얼룩져있는 초콜릿의 맛은 사실 달콤함이 아닐지도 모른다.

가나, 코트디부아르의 농부 대다수가 카카오를 재배하는데, 매우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일한다. 특히 세계 카카오 원두의 절반 가량을 생산하는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전쟁과 폭압이 끊이지 않는다. 코트디부아르가 이민정착을 추진하면서 카카오의 주요 생산지가 되는 과정, 그 중에서도 가난에 빠진 농민의 현실은 심각하다. 코트디부아르의 한 오지 마을에서 카카오를 재배하는데, 카카오 수확



에 어린 아이들이 동원된다. 그 아이들은 본인들이 땀 흘려 수확한 카카오가 초콜릿이 된다는 것도, 먹어본 적도 없다고 한다.

무엇보다 한 아이의 사흘치 품삯보다 더 비싸고, 닭 한 마리나 쌀 한 자루를 거뜬히 살 수 있는 값의 ‘자그마한 균것질거리’ 하나를 지구 반대편 아이들은 눈 깜박할 새에 소비한다는 거다. 초콜릿 기업들이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고수익을 벌어들이는 반면, 카카오 농부들은 하루 1달러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착취당하는 탓이다. 더 많이 경작하기 위해 농부들은 보호 지역까지 카카오나무를 심으며 숲을 파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생산·유통 과정에 아동노동, 인신매매는 물론 사기와 절도, 살해 등 범죄까지 공공연하게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불공정을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바로 공급망에 속하는 저개발국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치르는 것이다.

가난한 생산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래가 ‘공정무역’이다. 생산한 작물의 가격을 제대로 흥정할 힘이 없는 이들을 착취하는 대신, 적절한 이윤을 보장하고 생산성 개선을 위해 농부들에게 기술이나 기계 등 투자를 지원하면 지속가능한 생산을 이끄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공정무역 원칙을 따라 생산되는 제품을 찾아 이용함으로써 이를 지지할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설탕과 초콜릿부터 공정함을 더한다면, 그 맛은 더 달콤해지지 않을까.

세계자연유산 제주

2021 만 화 공모전

6. 21. 월 ~ 9. 30. 목

응모주제

유네스코 3관왕 제주를 소개하는 내용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I 응모자격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어린이
및 청소년

I 출품요건 및 제출양식

주제에 맞는 1~8컷 분량의 만화 (한 장에 표현)
4절 자유용지 (액자, 유리 등의 장식물 없이 제출)

I 응모기간

2021. 06. 21. 월 ~ 09. 30. 목

- ※ 참가신청서는 유네스코 3관왕 제주 만화·캐릭터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http://edujeju.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응모작품 및 참가신청서 동시 제출

I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사)제주환경교육센터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2, 3층)

※ 타 시도에서 우편 접수할 경우 소인 찍힌 날짜 기준

I 시상계획

대 상 40만원(2) 특별상 30만원(1)

최우수 도지사상 20만원(4) | 교육감상 20만원(4)

우 수 세계유산본부장상 10만원(6)

특 편 세계유산본부장상 5만원(10)

일 편 세계유산본부장상 3만원(20)

- ※ 응모작품 수에 따라 시상 내역(우수 이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시상금액에 해당하는 부상으로 지급됩니다.

I 수상자 발표

2021. 10. 21. 월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통보)

· 시상식 : 2021. 11. 12.(금) 예정

I 문의

(사)제주환경교육센터

☎ 064)759-2164

✉ edujeju@kfem.or.kr



※ 세부내역은 유네스코 3관왕 제주 만화·캐릭터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http://edujeju.org>) 또는 공모요강 참조.

주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of Jeju

주최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후원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ducation Office

2021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확대 캠페인
'우리가 숲이 되어 지키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아름다운 제주의 생태계 보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데 힘이 되어주세요!



신입회원님께는 제주에 사는 나무 이름과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직접 제작한
야생화 배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가입방법



1. 왼쪽의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으면 (핸드폰에 QR코드 스캔 어플이 있어야 함) 회원가입 링크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QR코드 접속이 안되거나 어려우신 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http://jeju.ekfem.or.kr> → 홈페이지 우측 '회원 가입하기' 클릭)
※ 가입할때 '지부'란에는 '제주'를 꼭 선택해 주세요!
(문의 : 064-759-2162)



어름날
바다